

#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도서관교육과 과제

- 독서/도서관운동의 원전이 되는 도서관교육 -

송 영 숙(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목 차>

- |                          |                        |
|--------------------------|------------------------|
| I.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도서관교육의 제한점  | III.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 |
| II. 독서체험은 독서교육의 기본       | 1.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
| 1. 언어체험-이야기는 가장 확실한 독서체험 | 2.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
| 2. 책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독서캠프    | 3. 서울독서교육연구회           |
| 3. 사고력/창의력 키우기           | 4. 어린이문고 및 가정문고-일본     |
| 4. 독서환경 만들기              | 5. 기타(서점/아동관)-일본       |
|                          | IV. 독서운동은 도서관운동으로 통한다  |

## I.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도서관교육의 제한점

공공도서관은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도서관교육을 생각하려면, 우선 사회교육기관의 범위에 있어서나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서관교육의 의미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본고에서는 사회교육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종류의 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도서관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도서관교육이라고 하면 도서관이용지도와 도서관운영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학문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학교나 도서관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도서관교육을 언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도서관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독서교육, 독서환경 조성, 독서지도방법, 독서자료에 대한 연구 등, 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봉사과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공공도서관이 아닌 사회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의 어린이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서교육은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서관교육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할 수 있는 도서관교육과 가장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교육의 실체가, 계속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언론기관과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독서운동이나 도서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여러 가지 형태의 문고 등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고, 집단주거형태의 주민들이 열 수 있는 문고, 독서운동이나 독서교육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문고, 가정에서 이웃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는 가정문고 등 다양한 형태의 문고는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이나 활동들이 독서운동,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도서관교육에 작지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II. 독서체험은 독서교육의 기본

### 1. 언어체험 -이야기는 가장 확실한 독서체험

#### 가. 문자교육이 독서교육의 시작인가?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를 읽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라고 하면 곧바로 문자를 떠올리고, 독서교육은 곧 문자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문자를 단순히 발음했

다고 해서 독서했다고는 할 수 없다. 독서, 즉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가 기호화한 문자와 문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독자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와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독해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문자를 읽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 빠르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어휘력과 상상력을 길러 주는 것, 이것이 독서력을 길러 주는 것이요 곧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문자를 읽는 순간 바로 이해되어 지기까지는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어휘력 상상력을 기르는 많은 경험도 쌓아야 한다. 말(어휘)의 뜻을 알고 그 말(또는 글)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를 머리 속에서 그림그릴 수 있어야 독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이야기(storytelling)와 독서

복잡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 중 독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러니 만큼 독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독서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독서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이러한 독서경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듣는 독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목소리가 주도구가 된다. 이야기는 목소리를 주도구로 사용하여 이야기의 문학과 교육성을 더욱 높여준다. 옛날이야기, 동화그림극, 그림책이나 동화책 읽어주기, 시낭송 등의 이야기들은 귀로 듣고 머리 속으로 이해하면서 이미지를 그려보는, 최상의 독서경험을 하게 한다.

옛날이야기를 한 꼭지 들으면 한편의 동화를 읽는 것과 같다. 이야기는 TV영상처럼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며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장점이자 독특한 면이다. 예를 들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듣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할아버지를 그렸는지는(수염을 허영게 드리운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인지, 콧수염을 기른 할아버지인지, 신사복을 입었는지, 도포에 갓을 쓴 할아버지인지 등) 완전히 듣는 쪽에 맡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는 듣는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듣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상상력을 키워 가기 때문에, 남을 흥

내내지도 않고 남이 흉내내지도 못하는 자신만의 상상을 형상화시키게 된다.

이야기는 또 어휘력을 길러준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배운다. 특히 2-4세 때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을 흡수하는 시기라고 한다. 말을 배울 때, 뜻을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말의 문맥을 통해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적재적소에 자기도 모르게 사용해 가면서 어휘를 배운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훈련도 된다. 어휘력이 늘어나면 실제로 자기의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어휘력과 집중력, 상상력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어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고 서로 작용하면서 창의력, 창조력이 생긴다. 그리고 문자를 배운 후에는 책의 세계,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가속이 붙게 될 것이다.

이야기 자체는 문학이다. 문자가 아닌, 목소리로 전달되는 문학이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구전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야기꾼이 문학작품을 목소리로 표현하여, 듣는 사람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야기 자체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문학작품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말속에 이야기 자체의 즐거움 뿐 아니라 이야기하는 동안 목소리를 주도구로 하여 표현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도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다. 목소리의 표현을 빌린 이야기가 작품을 생생히 살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이야기 자체의 문학적이기도 하며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어서 좋은 문학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 다. 이야기는 가장 확실한 독서체험

이가 아픈 것을 잊으려고 입을 벌려 자꾸 말을 하다가 '말하는 것'이 이가 아플 때 쓰는 처방이라고 해서 '이약'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이약'이라는 말이 변하여 '이야기'가 되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모든 교육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문자가 없고 독서자료가 없던 옛날로부터 모든 교육은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독서자료가 흡수처럼 넘쳐나는 요즈음에도 독서교육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태교에서부터 영유아, 유아에 이르기까지 문자가 필요없이 독서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조기독서교육의 방법이 바로 이야기이다. 또 이야기는 생각을 끌어내고 대화를 유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스킨쉽은 아기 때의 교육효과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한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야기는 바로 스킨쉽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공기의 진동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 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단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체험을 쌓아주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 주어야 하겠다. 카세트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TV처럼 일방통행으로 듣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표정과 감정을 살피가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육성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라야 하겠다. 어려서부터 이야기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분명히 책을 좋아하며 정서적으로 풍부한 어른으로 자라고, 이러한 어른이 많아질 때 우리사회는 더 좋은 사회, 훨씬 성숙한 사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 라. 옛날이야기의 장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경험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우선 이야기의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좋은 이야기란 독자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관계 속에서 좋은 이야기는 생겨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좋은 이야기란 이야기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잘 선택된 이야기의 삼위일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줄거리, 인물이 적고 이미지가 분명한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에 적합한 소재라고 한다면 민화, 우화, 전설 등의 옛날이야기를 들 수 있다. 곧 옛날이야기의 특성은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들려주기에 아주 적합한 이야기로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듣고 들어도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의 특성은 무엇일까?

첫째, 옛날이야기는 시작하는 말과 끝날 때 사용하는 말이 거의 같은 패턴이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을 했다.” 옛날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지 이렇게 시작과 끝이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현실과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섞인다.

둘째, 반복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옛날이야기는 단순하게 반복되는가 하면, 또 어떤 이야기는 힘이 점점 불어나는 반복으로 이야기의 맛을 더해 주고 있다. 옛날이야기는 반복에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반복의 효과는 옛날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가장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이야기

의 반복의 효과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도록 한다. 즉,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신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 옛날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앞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더라도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이므로 쉽게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한다. 또 이러한 반복은 리듬감이 있어서 스피드를 마음대로 조정함과 동시에 친밀감과 즐거움을 주는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옛날이야기는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가 보인다. 옛날이야기 속에는 항상 예언, 약속, 금지, 경고, 과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예측하여 이야기에로의 능동적인 참가는 물론, 점점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좋은 일로 칭찬이나 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듣는 쪽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한대로 이야기가 진전된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옛날이야기를 소재로 이야기훈련을 하고 자기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 문체가 달라서 같은 것을 표현해도 그 맛이 다름을 느낄 수 있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나 이야기의 전개의 미묘한 차이는 같은 이야기라도 그 맛과 재미가 달라지게도 한다.

## 2. 책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독서캠프

자연과 더불어 살던 예전에는 자연을 통하여 사람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풍부한 인간성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옛날에는 훌륭한 인간성을 위해 꼭 독서를 해야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복잡하고 빠른 현대생활 속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 독서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면서, 독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연체험을 권장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 계획해야 할 독서캠프이다.

독서를 잘 하려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되고, 독서의 즐거움은 책을 읽고 잘 이해하는데서 비롯한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험은 자연 속에서 거의 대부분 얻어낼 수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자연을 찾아가 우리 인간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할 것인가 또는 경험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사람이 책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으로 주제가 있는 독서캠프를 계획해 보는 것이 좋다. 독서캠프의 진행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임해(臨海)문고나 임간(林間)문고처럼 책을 가까이 두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적다. 세부적으로 치밀한 프로그램을 짜서 캠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독서캠프를 계획한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서 진행을 시킴이 좋다.

i) 우선 캠프의 목적을 생각해 보고 목적에 맞는 캠프장소를 모색한다. 훌륭한 캠프장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장소에 어울리는 목표를 정해도 좋을 것이다

ii) 다음으로 목적과 캠프장소의 특성을 생각하며 주제를 설정해 본다. 그리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독서자료를 선정하여 미리 읽어보도록 권장한다. 독서캠프인 만큼 자연체험과 책과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iii) 마지막으로 진행 프로그램을 짜고 독서캠프의 계획을 구체화한다. 예산과 시간의 배정, 참가인원, 구체적인 활동, 견학할 곳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마무리한다.

### 3. 사고력/창의력 키우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생활이 점점 복잡해지고 스피드가 빨라짐에 따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독서나 책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우리들의 생활이 편해진 것만은 확실하나, 자기만의 내면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획획 지나가 버리는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 볼 수 있을까? 내면의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며, 독서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기르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습득이나 학습위주의 독서교육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아 책과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

틀을 만들어 아이들을 그 틀 속에 가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어른들은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틀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두어 놓고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직된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생각이 더욱 유연하여 기발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것도 거기에서부터 창의력이 발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4. 독서환경 만들기

무릇 모든 교육이란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정교육으로부터 단단한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한들 그 교육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마치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땅으로부터의 양분을 빨아올리지 못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 튼튼치 못한 뿌리가 제구실을 하지도 못할 때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나치게 좋은 햇살은 오히려 그 나무를 더 빨리 시들게 하는 것처럼 바탕이 튼튼치 못한데 지나친 교육으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그르칠 수 있다. 독서교육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여서 진정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을 길러주려면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의 독서체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독서체험은 독서의 세계, 책의 세계로 쉽게 끌어들인다. 문자를 배우기 이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경험,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 어휘력을 기르는 독서체험은 독서교육의 기본이다. 가정으로부터 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서 좋은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람직한 독서체험으로 독서의 세계, 책의 세계를 경험하며 훌륭히 자라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Ⅲ.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

#### 1.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 가. 독서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

##### 1) 목적 및 대상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 속에서 어떻게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 교육할 것인가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게 함으로써 독서자료와 독자를 이어주는 독서교육 지도자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 교육을 병행하여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독서체험을 하게 하고, 어휘력·상상력·이해력을 증진시키며, 사고력·집중력을 키우는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훈련함을 목표로 한다.

독서지도 담당자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서, 독서시설 운영자 및 운영예정자,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지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다. 수업의 진행은 매주 읽은 자료에 관한 토론시간을 가지며, 이야기 훈련을 위한 충분한 실습과 종합토론 및 평가시간을 가진다.

## 2) 교육과정의 변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의 독서교육지도자과정은 1994년부터 개설되어 벌써 9년에 접어든다. 독서의 중요성,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독서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려면 어찌 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여 개설된 최초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이었다.

100여명씩 몰려오던 수강생이 IMF때문인지 또는 독서지도자 교육과정이 이곳 저곳에 너무 많이 생긴 탓인지 3,40명으로 숫자가 줄었고, 수강생의 숫자가 줄어든 반면 연령과 학력의 차이도 함께 줄어들었다. 주당 4시간 1년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 전공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되어졌던 교육내용이 좀더 구체화되는 변화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많은 수강생에게 일방적으로 주던 수업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업이 되어 수강생이 독서자료를 충분히 읽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지 점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자유로우면서도 엄격한, 그리고 수강생 개개인의 장점과 가능성마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해지고 수강생 상호간에도 훨씬 정보교환이 수월해지게 되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독서교육지도자과정의 교육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던 독서상담과 이야기(스토리텔링)교육이, 1998년부터 이야기(스토리텔링)전문교육과정으로 개설되었다가 2001년부터 독서교육지도자과정과 합쳐지게 되고, 별도로 독서상담치료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강생의 변화(수와 요구 등)와 사회상황의 변화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관찰하며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3) 교육내용

\* 독서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1학기)

주	오전(독서교육과정) 10:10-12:00	오후(이야기교육과정) 13:10-15:00
1	프로그램설명/방학활동소개	이야기의 정의
2	정보와 사회	이야기의 방법 및 종류 (순수 이야기, 동화그림극)
3	독서능력/ 흥미발달단계	이야기 시간 (1)
4	독서자료의 종류와 특성	옛날이야기의 특성
5	독서 후 정리 (1)	이야기실습 <1>
6	" (2)	" <2>
7	도서출판·제작·디자인(특강)	" <3>
8	글쓰기의 이해 (1)	" <4>
9	" (2)	동화그림극 만들기
10	독서교육프로그램짜기	동화 속의 인형 만들기 1
11	문학관련 특강	" 2
12	도서관 견학	이야기 실습 <5>
13	도서관과 독서교육	이야기 시간 (2)
14	독서교육프로그램적용발표	수료이야기 및 평가 1
15	자료집(문집) 만들기	" 2

\*독서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2학기)

주	독서교육과정 10:10-12:00	이야기교육과정 13:10-15:00
1	프로그램설명/방학활동소개	이야기의 교육성 / 문학성
2	독서교육의 원리 / 필요성	이야기의 방법 및 종류 (인형극, 막대인형, 슬라이드 등)
3	독서자료 선정 및 평가	이야기 시간 (1)
4	독서자료평가의 실제	이야기실습 <1>
5	특강(최인호)	" <2>
6	독서자료의 발달	동요, 동시 / 전래동요
7	독서교육시설, 독서환경	이야기 실습 <3>
8	논술 쓰기 (1)	이야기 시간 (2)
9	" (2)	동화 속의 실제이야기(손연자)
10	독서교육 프로그램 짜기	실제이야기(방법)
11	신문을 활용한 독서교육 (1)	" (주제에 맞는 사건 찾기)
12	" (2)	" (구성)
13	사회교육기관의 독서교육	실제이야기 실습
14	독서교육프로그램 적용발표	수료이야기 및 평가 1
15	자료집(문집) 만들기	" 2

나. 독서상담세미나

주	교육 내용 13:10-16:00
1	프로그램 설명 및 자기소개 현재 진행 중인 독서교육활동의 소개
2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 (1)
3	" (2)
4	" (3)
5	식 목 일
6	단계별 독서상담치료를 위한 자료 평가(유치원/ 1학년)
7	" (2~3학년)
8	" (고학년)
9	독서치료 및 치료자의 정의
10	독서치료의 과정 (1)
11	" (2)
12	독서행위 및 글에 나타난 문제분석, 평가
13	문제유형별 상담치료와 독서계획사례 (1)
14	" (2)
15	독서상담 / 독서치료 전문가로서의 자기평가

2.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가. 저/고학년 어린이독서교실

1988년 가을부터 운영된 독서교육프로그램이다. 그 당시에는 독서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문화센터에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것은 선구자적인 계획이었다. 독서가 필요하다고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으나 어떻게 독서교육에 접근해야 할지 확신이 서있지 않거나 그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에게 한 가닥 빛의 역할을 하기까지 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독서습관을 들여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하자는 것이 교육목표였다. 독서교육이론을 접목시키며 신중하게 도서선정을 하여 아이들에게 책소개를 통해 독서동기유발을 하고 일주일동안 과제로 책을 읽어오게 하였다. 12주를 한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읽어 온 책에 대해 토론도 하고 줄거리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후활동을 한 후 간단한 독서기록을 한다. 방학이 되면 하루쯤 시간을 내어 도서관을 견학하기도 했다.

\* 어린이독서교실 프로그램의 예(1998.6-8)

	저학년		고학년	
	책이름	출판사	책이름	출판사
1주	자기소개·책소개		자기소개·책소개	
2주	이게 뭐지 알아맞혀볼래?	미세기	우주에서 온 통키박사 1	문원
3주	책벌레가 된 도깨비	두산동아	우주에서 온 통키박사 1	문원
4주	손 큰 할머니의 만두만들기	재미마주	흰 머리산 하늘 연못	두산동아
5주	까마귀 소년	마루별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다섯수레
6주	흔들 다리	고려원	날아라 된장 잠자리야	사계절
7주	이제 너랑 절교야	비룡소	그래 멋진 직업을 찾고 말테야	산하
8주	쿨쿨 할아버지 잠 깬 날	사계절	천지 속의 용궁	창작과 비평사
9주	산골아이	가교	돌아 온 진돗개 백구	대교
10주	파란 앵두 마녀 밀루	서광사	돼지가 한마리도 죽지 않던 날	사계절
11주	무서운 그림자귀신	동아	소나기	길벗어린이
12주	도서관	시공사	작은 책방	길벗어린이

문화센터의 독서교실의 문제점은 도서관처럼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책상과 의자가 전부인 교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깨우쳐도록 할 것인가가 큰 과제였다. 다음에 읽어올 책의 소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의 선정이 관건이었고 아이들에게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의 진행방법에도 신경을 썼다. 이 때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효과적이었다. 수업에 임하도록 주의를 집중시켜 주었으며 수업에 큰 재미를 더해 주었다.

나. 유아독서교실

학령 전 어린이가 대상인 이 프로그램은 문자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를 통한 독서체험, 언어체험을 하도록 계획되어졌다. 계절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그림극,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어 독서체험을 쌓도록 한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서로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글이 아닌 그림과 말로 표현되도록 유도한다.

다. 어린이 발표력 향상교실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집안 어른을 통해 얻어진 생각이나 이야기를 주제에 맞추

어 끌어내도록 한다. 단계별로 생각을 깊이하고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여 발표를 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방법은 글쓰기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주제는 계절이나 학교생활, 사회생활과 연관성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좋다.

\* 어린이 발표력 향상교실 프로그램의 예(1998. 9-11)

월별 대주제	주	주간 소주제
9월의 주제 「가을」	1주	자기소개
	2주	귀뚜라미
	3주	하늘
	4주	동요·동시 찾아보기
10월의 주제 「전통문화」	5주	추석
	6주	한글
	7주	탈춤
	8주	옛날이야기 해보기
11월의 주제 「겨울채비」	9주	우리 집
	10주	옷
	11주	김장김치
	12주	동요·동시 찾아보기

첫 단계에서는 어떤 한 주제에 관련된 여러 사건이나 생각 중에서 충분한 대화를 거쳐 한 두 가지를 골라내고, 선택한 이야기꺼리에 대해 더욱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로 풀어본다.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겨 쓰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쓴 글이 자기가 말했던 것을 충분히 잘 표현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빠진 부분은 보충해 주고 설득력있는 글이 되도록 마무리해 준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쓴 글을 자신있게 발표해본다.

라. 유아 발표력 향상교실

기본적인 원리는 어린이 발표력 향상교실과 같으나 유아는 문자교육 받기 이전의 어린이가 대상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엄마에게 들어 온,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앞서 발표한 친구의 이야기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나, 엄마와 충분히 주제와 연관된 대화를 거친 아이는 확실히 발표하는 모습과 태도가 다르다.

\* 유아 발표력 향상교실의 예(1998.9-11)

날짜	주 제	비 고
9월 4일	자기소개	* 과제로 나간 주제에 대해 아기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11일	귀뚜라미	
19일	하늘	
25일	동시 외우기	
10월 2일	추석	* 「동요 외우기」 나 「옛날이야기 하기」는 따로 교재가 배부됩니다.
9일	한글	
16일	탈춤	
23일	옛날이야기 하기	
30일	우리 집	* 주제와 관련된 동화를 매주 들려줍니다.
11월 6일	옷	
13일	김장김치	
20일	전래동요 외우기	

### 3. 서울독서교육연구회

#### 가. 책고리운동(독서 및 도서관운동)

##### 1) 책고리의 의미

첫째, 책고리라는 말은 문고리에서 힌트를 얻었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면 안으로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듯이 책고리를 잡아당겨 책장을 열면 책의 세계, 독서의 세계로 들어간다. 부모, 교사, 작가, 출판인, 사서 등 어린이 책이나 독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과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어른들은 각자가 책고리가 되어 어린이들을 즐거운 책의 세상, 독서의 세계로 끌어들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고리라는 순수한 우리말은 chain, circle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책과 어린이 그리고 자연을 묶어주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어른이 되자는 뜻이다.

셋째, 순수한 우리말인 책고리는 책을 담아 보관하는 그릇, 곧 도서관을 의미한다. 도서관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하는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도서관의 발전은 독서환경의 완성이다.

서울독서교육연구회는 이러한 책고리의 의미처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책의 세계, 독서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독서운동을 하고자 하며 또 어린이들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이 이루어지도록 도서관운동을 목표하고 있다.

### 2) 어린이문고활동

\*작은 어린이도서관 『책고리문고』 -서초구 반포4동에 연구회의 사무실과 함께 아늑하고 작은 어린이도서관 『책고리문고』를 개관하였다. 이상적인 어린이도서관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며, 책고리 독서학교의 운영으로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녀독서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육, 어린이사서를 위한 사서 재교육, 이야기보급을 위한 이야기교육, 좋은 할머니가 되는 훈련 등을 통해 어른과 어린이가 책을 매개로 연결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

매월 둘째 목요일에는 '책고리 연구모임' 둘째 월요일에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어른들을 위한 '책고리 이야기잔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재미 솔솔 이야기시간'이 열린다.

\*마을 어린이도서관 『소옥문고』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공간으로 독서환경을 제공하려고 성북구 보문동에 가정도서관을 열었다. 小玉은 어린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제시대의 어렵던 시절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오랜동안 어린이들에게 꿈을 길러 주시던 김소옥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할머니의 이름을 빌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던 집, 방 한 칸에 아주 조그만 아이들의 독서공간을 만들었다. 아기를 데리고 와서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까지 문을 연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에는 '동네방네 이야기잔치'를 연다.

### 3) 독서교육정보 발간, 책고리 회보 및 이야기자료 배부

매달 정례적으로 모이는 책고리 연구모임에서는 회원들이 모여 한 달 동안 읽었던 독서자료에 대한 발표, 어린이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까 등,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자료 평가표를 제출한다. 이 평가표는 도서선정의 기본이 되며 모임의 결과는 회원들에게 매달 책고리 회보로 배부된다.

책고리 이야기잔치에서는 한 시간동안 약 7편의 이야기가 발표가 되는데,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시간이다. 이 시간에 참여했던 사람에게는 이야기자료가 배부되고, 돌아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야기는 읽어서 들려주기 보다 들어서 들려주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선정도서목록, 회원들의 활동, 모임안내와 회원소식 등이 모여져서 계간으로 '독서교육정보'를 발간하여 회원과 공공도서관 및 출판사 등에 배부하고 있다. '독서교육정보'에 게재되는 선정도서목록의 도서선정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 몇 가지가 있다. i)꾸준한 독서습관을 고려하여 매주 한 권의 책을 선정한다. ii)계절, 사회적인 이슈, 학교생활 등 일상과 유리되지 않도록 한다. iii)될 수 있는 대로 새로 출판된 책을 선정한다 등.

#### 나. 어린이/부모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독서학교: 독서토론, 글쓰기, 독서체험, 신문활용교육, 역사체험, 영어동화 읽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책고리 세미나: 동화책고리, 알세(Reading Club in English) 및 알자(Reading club in Japanese) 이야기교육, 신문활용교육, 글쓰기 및 논술교육, 부모역할교육 등 필요에 따라 회원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을 한다.

#### 다. 독서체험 프로그램

##### 1) 책고리 독서캠프

기본적으로는 1박2일의 일정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며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개학이 일주일 정도 남아있어 방학생활을 마무리하기 좋을 때를 택한다. 이러한 캠프의 계획은 가족여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대가족체험 독서캠프(원주 치악산)』

독서캠프의 참가인원이 30-40명 정도의 조출한 캠프일 때 어울린다. 친구이거나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기들의 자녀를 친구로 만들어 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 이런 형태의 독서캠프를 계획한다면 효과가 좋을 듯 하다.



진행: i) 할머니 아빠들까지 참가하여 대가족을 만든다. ii) 참여한 부모들의 나이나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 큰 아빠 큰 엄마,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이모, 고모로 부르게 한다. 그리고 참가한 어린이들은 서로 별명을 지어주어 한가족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고, 웨밀리트리도 만들어 가족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물론 별명을 지을 때는 친구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시간을 주어 자기들 스스로 별명을 지어 선물하도록 한다. iii) 아빠들의 어렸을 적 이야기,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들꽃 들꽃에 대한 이야기, 캠프파이어, 물놀이는 물론 들꽃 들꽃들을 채집하여 식물도감도 찾아보며 자연체험을 즐기도록 한다.

\* 『감골 영동 맛보기 독서캠프(영동 유스호스텔)』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문화 등을 알고 싶다면 그곳에 관련된 책을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협력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진행: i) 독서캠프를 진행할 때에 지방 어린이와 도시 어린이가 서로 친해지고 모두 섞여지도록 조를 짜서 조별활동이 두드러지도록 한다. ii) 감골 영동의 특색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영동은 감나무 가로수를 보며 감골임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이웃하고 있는 옥천에 있는 국악당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악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

\* 『개화기의 역사 엿보기 독서캠프(덕포진 교육박물관)』

김포의 덕포진에 있는 교육박물관은 예전의 학교교육을 체험하는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덕포진은 서양문물을 배척하던 흔적을 잘 보여주는 유적지이다. 교육박물관의 바로 옆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김포시에 신고만 하면 캠핑하기도 좋다.

진행: i) 엄마 아빠들이 공부했던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옛날 교실에서 부모들의 학교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 ii) 교육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옛 조상들의 슬기도 볼 수 있다. iii) 병인양요, 신미양요 당시 서양문물을 배척하던 흔적이며, 임금님을 모시고 강화로 피신하다가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한 손돌과 그의 무덤 등, 개화기의 역사를 엿보는 좋은 기회를 만든다.

\* 『책과 함께·자연 속으로 !(영월 책박물관)』

영월에서 좀 떨어진 곳, 깊숙히 들어앉은 아름다운 마을의 책박물관 -책박물관으로 참하게 변신한 폐교된 분교가, 신작로에서 하늘 나라를 향해 올라가듯 계단을 한참 오르면, 운동장을 앞자락에 멍석 깔 듯 깔아놓고 내려다보고 있다. 자연과 책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환경문제도 생각해 보고(동강이 아닌 서강이 가까이에 있음) 영월의 장릉(단종의 능)과 단종의 유배지인 청량포도둘러 볼 수 있다.

진행; 책박물관의 관람,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정취 느끼기, 어스름 저녁나절 서강의 냇가에서 자연 즐기기, 또 캠프파이어 때는 감자 옥수수도 구워 먹으며 강원도를 느낄 수 있다. 읽어 올 책도 시골, 자연, 환경과 관련된 몇 권을 선정해 보면 좋을 것이다.

\* 『오감놀이를 통한 독서체험(충주 토끼산 그림터)』

진행 및 캠프장소,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캠프일정과 참가했던 어린이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캠프일정>

8월17일

- 8:30 집합, 출발
- 12:00 점심 (버스)
- 12:30 충주 '토끼산 그림터' 도착
- 13:00 개소식  
정승각 선생님 말씀, 토끼산 그림터(작업실) 견학
- 13:30 참가회원 인사 및 소개 / 조 구성
- 14:00 정승각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오감놀이를 통한 그림그리기"
- 16:30 봉황자연휴양림으로 이동
- 17:30 조별활동 "누구네 카레라이스가 제일 맛이 좋을까?"
- 18:40 시식 및 심사
- 19:00 남남 우리 카레라이스가 최고!
- 20:30 이야기시간
- 21:15 캠프 화이어, 퀴즈 및 장기자랑

8월18일

- 6:00 기상, 산림욕
- 8:00 아침식사
- 9:30 조별 독서토론
- 11:00 물놀이
- 12:00 점심식사
- 13:30 권태웅 선생님 생가 및 시비 답사
- 14:30 '감자꽃' 낭송, 노래부르기 및 조별 퍼포먼스
- 16:30 시상 / 폐소식

-독서 캠프를 다녀와서

수원 화서초등 4-2 박새롬

8월 17일에 1박 2일로 독서캠프를 떠났다. 마음이 붕~ 뒀다. 그림책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와 '감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 에 그림을 그리신 정승각 선생님의 작업실에 가기 때문이다. 나는 캠프 가기 전에 정승각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림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권태웅 시인의 시집 '감자꽃' 도 읽어보았다. 그 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자꽃은 외워 갔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성격은 어떨까? 그림을 정말 잘 그릴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12시경에 토끼산 그림터에 도착했다. 조금 후에 서울에서 책고리 회원들도 도착해 조를 나누고 조장도 뽑았다. 엄마랑 나는 떨어져서 서운했다. 내 동생 새미는 나와 엄마를 떨어졌는데 선생님을 너무 잘 따라서 조금은 놀랐다.

정승각 선생님께서 벽에 걸린 작품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세히 보고 상상하고 그리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라는 책 걸 표지가 눈에 띄었다. 실제로 보니까 선생님이 직접 그렸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 집에 있는 삼사리가 그 주인공이라니 너무 놀랐다. 까만 삼사리가 기둥에 묶여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순해 보인다. 선생님과 우리는 종이엔 물고기를 만들었다. 한지로 물고기 모양으로 자르고 예쁘게 무늬를 그려 넣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지를 찢어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붓에 물감을 묻혀서 콕콕 찍으며 꾸몄다. 가장자리를 다 풀로 붙이고 바람을 들어가게 해서 입을 벌리고 선풍기 앞에 놓으니 진짜 물고기처럼 춤을 추는 것이다. 실로 묶어 달리면 연처럼 될꺼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드디어 통나무집으로 갔다. 숙소 가운데는 공연장이 있고 그 밑에는 캠프파이어 하는 곳이 있다. 너무 신났다. 꼭 아늑하고 평화로운 통나무집 같다. 카레라이스를 만드는 시간이 왔다. 조끼리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고 하는 등 바쁘게 수돗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공연장에 앉아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조 선생님은 '오사카'라는 무서운 얘기를 했다. 마지막에 선생님이 "바로 네!" 하고 소리쳐서 다 깜짝 놀랐다.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있었다. 캠프파이어 시간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꽃이 튀었다. 하늘을 보니 별이 쏟아 질 것처럼 많았다. 애들이 무슨 별자리, 무슨 별자리라고 찾고 난리다. 난 아무리 찾아보아도 모르겠다. 별을 보니까 '윤삼현' 시인의 '별 보던 밤'이

란 시가 떠올랐다.

둘째날, 6시에 일어났다. 조금 후 우리들은 산으로 올라갔다. 들꽃과 들풀이 너무 잘 이어져 있고 방아깨비, 여치 등 곤충이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학년 별로 모여 독서 토론을 했다. 나는 고학년 반에서 모둠별로 나누어서 '강아지똥' 책에서 각자 할 역할을 나누어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각자 할 얘기를 짜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민들레를 그려서 가위로 오려 나무젓가락에 붙였다. 하지만 아쉽게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다. 열심히 했는데.....

다음은 버스로 권태웅 선생님의 생가에 갔다. 그 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그 곳에서 시인에 대한 이야기와 놀던 누각 등 많은 말씀을 들었다. 탄금대라는 곳으로 가서 시비를 보고 그 곳에서 시를 낭송하고 감자꽃 노래를 다 함께 불렀다. 그리고 어제 만든 물고기를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돌에 척척 걸쳐놓고 이야기와 몸짓으로 꾸며서 발표했고 선생님께서 심사하신 소감과 시상을 해 주셨다.

이번 독서 캠프는 정말 재미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오소리네집 꽃밭'에 정승각 선생님의 사진이 나와있어서 신기했다. 정승각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감자꽃 노래를 계속 입으로 흥얼흥얼 따라 해 보았다.

## 2) 독서체험나들이

여름방학에는 1박2일로 독서캠프를 다녀오고 겨울방학에는 독서체험나들이를 하게 된다. 여행할 지역과 관련된 책을 두 권 정도 먼저 읽게 하고 여행지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준다. 그리고 책에서 얻은 지식, 직접 보고 들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오가는 버스 안에서 퀴즈문제도 풀면서 보고들은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 4. 어린이문고, 가정문고-일본

### 가. 어린이문고

#### 1) 카이즈카(貝塚)문고와 사쿠라(櫻)문고

카이즈카 문고는 동경 동남쪽 치바(千葉)시 사츠기가오카 주택단지 내의 공원입구에 있는 페차버스 두 대를 이용해서 연 문고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개관한다. 버스 한 대는 열람실, 한 대는 이야기실과 사무실로 이용한다. 버스 내의 열람실은 그림책의 신간안내가 장식처럼 보이고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까지 달려있다. 의자를 없애고 삼면을 낮은 서가로 꾸며 재미있고 친근해 보인다.

치바(千葉)시에는 공공도서관이 8개, 문고가 24개소이다. 치바시 문고연락망(협의회)에 참가하는 문고 수가 24개소이니, 그 외 문고까지 합하면 약 38개소 정도가 된다. 카이즈카 문고는 1978년경 주택단지에 도서관이 없을 때 아이들에게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만들었다. 마땅한 장소를 몰색하다가 공원에 버스를 이용해서 문고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부터 23년 간 운영되어 왔다. 몇 년 전에 근처에 도서관이 개관되었지만 아직도 문고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꾸준히 있으니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는 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한다. 도서관직원들은 전근이 되면 아이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없지만, 문고의 자원봉사자인 동네 아주머니들은 계속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책을 권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문고를 꾸준히 찾는다. 그래서 문고는 아이들과 함께 자란다.

현재 평균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12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이들을 돕고 있다. 10권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오전에 있는 이야기시간은 엄마들의 이야기교육도 겸한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엄마들은 근처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사쿠라(櫻)문고는 지역센터를 이용한 문고이다. 문고를 연 것은 10년 전, 지금의 장소로 옮긴 것은 2년 전이다. 책은 많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넓은 장소에 아이들은 칠판에 그림도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5,6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언니가 동생에게 조용히 책을 읽어주는 모습과 글씨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책장을 넘기며 이야기를 만들고,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오는 남학생들, 자연스럽게 책과 어우러진 풍경이다. 치바(千葉)시의 후지가오카(富士が丘) 자치회관의 홀이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 오후가 되면 어린 이문고로 변한다.

## 2) 캥가루 문고- 스기나미(衫並)구 이즈미(和泉)보건소

캥가루 문고란 엄마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캥가루에 비유해서 지은 이름으로 인접하고 있는 네리마(練馬)구의 6개소의 보건소에 있는 캥가루 문고에서 배워온 아이디어이다. 보건소 2층 다목적실이 한 달에 한 번 오전(9:00 ~ 11:00)에 문고가 된다. 다목적실에 칠판과 접이식 결상, 커다란 양탄자 2개를 가져와 바닥에 깔고, 바퀴가 달린 책장(북트럭)을 밀고 와서 책들을 양탄자 위에 벌려놓으면 준비 끝이다. 보통 때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홀을 책과 퍼즐, 인형장식, 양탄자 등을 준

비하여 그 목적을 변경하여 문고로 사용한다. 도서관에는 잘 가지 못하는 엄마들도 아기들의 예방주사나 신체검사 때문에 보건소에는 꼭 와야만 하므로 이 때를 이용해서 책과 아기, 그리고 엄마를 연결해주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자기아이들이 다 읽고 난 책을 기증 받고 약간의 책을 구입해서, 2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이야기시간에는 또 다른 2명의 이야기전문가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 돌 되기 전의 아기들도 엄마와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엄마들도 이야기시간을 즐긴다. 첫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대부분 아기를 어떻게 잘 기를까 고민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엄마가 직접 아기를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자원봉사자의 말에 공감의 간다.

강가루 문고에서는 1인 3권씩 1개월간 대출해 주고, 책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납일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주로 유아 대상의 제본이 튼튼하고 단순한 내용의 그림책이 많다.

#### 나. 가정도서관 -오오사와(大澤)문고

오오사와문고는 주택가의 한 가정집에서 1968년 12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사립 초등학교 교사였던 구리야마(栗山)씨는 장남이 태어날 때 퇴직하여 도시에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둘째가 태어날 무렵이 되자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뜻 깊은 것을 전해 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모였을 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책을 읽어줄 때마다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문고를 열고 있다. 처음에는 사과상자에 종이를 붙여 책상과 책꽂이로 사용하며 세평 반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싶고 책 읽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그 좁은 집에 30~50명 정도가 모이기도 했다. 근처 비행장 터에서 자리를 깔고 행사를 벌이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는 90명 정도가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던 때도 있었다. 문고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문고소식지도 만들고 인형극을 하기도 했다.

1991년 장소가 너무 좁아서 정원에 있는 창고를 청소해서 문고로 개조했다. 아이들이 깨끗해진 그 곳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하여 1일 캠프를 열었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참가대상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대상은

물론 그 문고를 이용하는 아이들로 제한했다. 그 좁은 방에서 하룻밤 자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며 얼마나 들떴을까 상상해 보라. 그 당시에 4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어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즐거운 추억 때문에 이곳으로 다시 이사하면서 자신의 책을 문고에 기증하고, 지금은 6학년, 3학년 아들을 문고에 보내면서 본인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문고의 일을 돕고 있었다. 구리야마씨를 비롯하여 3명의 자원봉사자가 오오사와문고를 돕고있다.

20년, 30년, 그 긴 시간을 한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또 그 또래의 자식을 돌만 한 세월 동안 문고를 지속해 오는 힘이 무엇일까? 책을 읽어줄 때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힘을 얻어 지금까지 왔을 것이다.

## 5. 기타(아동관/서점)-일본

### 가. 이즈미 아동관

동경도내의 스기나미(衫並)구에는 다른 구보다 2배 가까운 수의 아동관이 있다. 초등학교 옆에는 대개 아동관이 있어 40여 군데가 되고 상시 개방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0~18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직원들은 교사자격증이나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관에는 도서실, 공작실, 육성실, 운동실, 음악실 등이 있고 방과후에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오후에는 바쁘게 움직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학교 클럽'에 등록을 시키면, 학교가 파한 후 가방을 맨 채로 아동관으로 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도록 돌보아 준다. 학령 전 어린이는 유아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아동관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고 있는 셈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관심을 갖고 모이게 하기 위해 금요일 오전(11:00~11:15)에는 '그림책이 좋다' 오후(4:00~4:30)에는 유치원생~중학년생을 위한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라는 이야기시간이 있다. 스기나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7개의 이야기 그룹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동관에는 엄마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갓 엄마가 되어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르는 부모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아이에게 TV 만 보게 하거나, 교육이란 미명 아래 비디오만 보게 하고, 간혹 어떤

엄마는 우울증에 빠져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핵가족화로 가족의 수가 줄어 집에서만 지내는 엄마들도 많다. 이런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길 위해서 만든 0~2세까지의 아기와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매년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아기가 조금 크면 아기를 데리고 처음에 공원으로 나간다는 데서 '공원데뷔'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그러나 공원에 나와 산책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아동관에서는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주어 이제는 '아동관 데뷔'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처음 온 사람이나, 그룹이나 단체에 들어가기 어려운 성격의 사람들도 쉽게 발걸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한다.

#### 나. 어린이전문서점-크레용하우스

동경의 하라주쿠(原宿)에 자리한 크레용하우스는 '어린이와 여성의 관점을 소중히 여긴다'는 캐치프레이즈로 1976년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림책과 차를 파는 어린이서점에서 출발하여 점차 어린이 책의 영역을 넓혔고, 지금은 어린이 책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책이나 여성이 쓴 책, 자연식품을 이용한 식당, 완구, 출판까지 겸하고 있다. 지하에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을 이용한 식당과 환경 친화적인 자연식품과 공산품을 판매하고, 1층에는 어린이책, 2층은 목제완구나 교구, 그림책과 관련된 상품, 엽서, 카드 등을 팔고 있으며, 3층은 여성을 주제로 한, 여성이 저자한 책들이 있다. 재미있고 좋은 책들을 골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읽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음이 이 서점의 운영에 대한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 IV. 독서운동은 도서관운동으로 통한다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사회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독서교육은 도서관교육과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모든 독서교육활동을 사회적, 국가적인 독서운



동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독서운동은 또다시 도서관운동, 도서관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수의 발전된 도서관을 가진 이상적인 사회구현을 위하여 단단히 터를 닦지 않으면 안 된다. 단단한 터를 닦는 방법은 바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며, 교육방법으로써의 독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독서의 궁극적인 목표인 훌륭한 인격형성을 위해서 잘 선정된 책을 읽고 그 책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독서교육의 핵심이라고 본다. 즐거운 책의 세계를 경험시켜 좋은 독서습관을 기르고, 이해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들은 책과 사람, 특히 어린이를 잘 연결해 주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언어를 통해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독서체험의 방법이라면,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독서의 효과를 높이는 독서체험으로는 독서캠프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의 중요한 관점은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가 이다. 독서교육에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되어져도 지나치지 않는 독서체험의 문제와 독서지도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일반적인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될 도서관교육의 방법으로 적용되도록 강조하고 싶다.

## 1. 독서활동을 완성시키는 독서캠프

어린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관심이 없이 어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모든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옳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린이 독서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 속에서 옳고 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려면, 아주 중요한 독서체험인 자연과 함께 하는 독서캠프가 보잘 것 없는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캠프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다음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확실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캠프장소를 찾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리고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가를 고려하여 뚜렷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캠프장소를 찾는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한다.

둘째, 캠프를 지나치게 대형화하지 않고 참가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캠프의 진

행에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즐기면서 독서체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참가자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부모들도 참여한다. 어른이 많이 참가하므로 안전사고의 확률이 거의 없으며, 어린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같이 참가한 엄마들도 캠프의 한가족으로 즐길 수 있다.

셋째, 독서캠프를 통해 사람과 자연과 책이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 캠프장소의 특성, 그 지역의 역사와 유적지 등을 조사하고 책을 선정하여 미리 읽고 자연과 더불어 그것이 체험되도록 '책이야기' '독서토론' '이야기시간' '유적지 견학' 등의 활동을 한다.

## 2. 독서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야기

요즘 일본에서는 아기들에게 책을 경험하게 하자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에서 19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방에 그림책을 넣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bookstart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bookstart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선정도서목록을 만들어서 학교나 유치원에 나누어주고 사서들이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책출판사인 후쿠인칸쇼텐(福音館書店)에서는 아기들에게 좋은 그림책을 경험하게 하는 '어린이의 벗(こどものとも)'이란 월간 그림책을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어린이문고, 학교, 아동관, 보건소 등 아이들이 모이는 기관이면 어디든지 이야기시간(storytelling hour)이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좋은 그림책을 경험하는 어려서부터의 독서교육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분명히 발전된 사회를 약속할 것이다. 독서의 즐거움을 주는 원천인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 어휘력을 기르고 이러한 독서체험이야말로 독서교육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은 후의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하며, 어느 부분이 더욱 그 아이에게 다가오고 이해가 되었는지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살펴볼 일이다.

## 3. 올바른 독서지도자교육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의 독서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바르고 옹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서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들은 개인적인 독서교육활동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이야기시간, 독서회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서의 자원봉사, 도서관 문화교실, 문화센터 등의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책과 사람을 묶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독서지도자 교육과정의 개설을 선두로 이제는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에 독서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얼마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독서지도자의 자격증 문제가 시골시골하다. 그래서 자격증을 주기 위해 4년 동안 따야 할 만큼의 학점과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내놓고도 있다.

무릇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로 사랑과 관심이 독서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 부모는 부모자격증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다. 내가 무슨 학문을 전공했던 간에 내가 가진 장점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자녀교육에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좋은 씨(교육방법)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돌짜 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닌 좋은 마음 밭을 가꾼 후 씨를 뿌려야 몇 십 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서교육은 책을 매개로 하여 즐겁게 아이들과 활동하고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이 바로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마음 밭을 가꾸는 일이며, 그 좋은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

독서지도자는 책과 아이들의 연결고리가 되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좋은 독서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은 자신의 지적욕구도 충족시키고 책을 매개로 한 연결고리가 되어, 사랑과 관심을 내 자녀의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쏟아 붓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